

용적률 게임, 36 개 건물을 분석하며. About analyzing 36 buildings of the FAR Game

건물의 설계과정과 설계방법을 하나의 관점(방법)으로 설명하거나 독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설계과정은 건축가의 의도(의지)만이 아닌, 시시각각 변하는 건축주의 요구, 한정된 예산과 시간, 여러가지 법규, 시공사와의 협업에 따른 절충 등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개입된다. 더불어 이러한 모든 변수들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적률이라는 건축용어와 이것을 통해 벌어지는 여러가지 한국적 현상들을 “용적률 게임”이라는 화두아래 분석하고 해석해보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불가능에 가까워 오류를 범할수 있음에도, 이러한 시도를 통해 변화하고 있는 한국건축(저성장 시대로 접어 시장의 변화, 많은 젊은 건축가들의 등장 등)에 다양한 의제(Agent)와 담론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거라는 생각한다. 동시에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주제 ”전선을 알리다”와도 가장 부합되어 한국건축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해 세계의 다른 건축가/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논의할수 있으리라 믿는다.

분석의 대상은 36 개의 건축가들의 작업이다. 최근 10 년 사이에 (특히 2010 년 이후), 2 층 일반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작업한 36 개의 건물들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축시장의 변화(아파트건설의 쇠퇴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 그리고 소위 업자(Builder)들이 주도하던 시장에 건축가(특히 젊은 건축가)들이 발을 들여놓으며 벌어지는 여러가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중 주목한 부분은, 첫번째,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인정받으려던 건축가의 작업으로서가 아닌, 지극히 현실적이고 일상의 작업들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용적률과 더불어 많은 외부적인 요인(건폐율, 주차대수, 공사비용, 설비 면적들)사이에서 치열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작업이 건축주의 욕망(사회적, 경제적)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해소시키는 매체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선 작업들에 덧입혀진 건축가가 부여한 다양한 방식의 건축적인 가치(양적, 질적)들이 있다. 이 세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36 개의 건물들을 분석하였고, 그것을 통해 각각각색의 건물들이 현재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었음을 알수 있었다.

분석의 과정과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은 전부 다른 선택과 방법으로 만들어진 건축가의 작업들이 자칫하면,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정되어진 틀(Frame)안에서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설계의 과정이 대지와 법과의 상관관계에서부터 시작했고, 완공된 건물의 모습은 이렇게 정해진 상관관계의 범위를 벗어날수 없기때문에, 시작과 끝부분만으로 비교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 심지어 이것만 놓고 본다면 법과 제도에 의한 틀이 건축가/디자이너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가능해보인다. 그렇기에 세심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건축가들의 다양한 전략과 창의적인 방법들을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결과물들이 내부에 감춰져 있거나 외부라 하더라도 건축가가 자신의 작업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형태적인 독특함/세련됨으로 읽혀질수 있기에 이것들을 망라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펼쳐놓은 이번 전시를 통해 양적인 팽창으로만 질주하던 한국사회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우리 시장의 변화와 수많은 제약안에서 문제해결은 물론 질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건축가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창의적인 요소들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첫 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건축에 99%는 공간 그 자체, 혹은 자연적 요소(건축의 태생은 자연에 저항하고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 할때)에 의해서가 아닌 사회적인 제도와 욕망이 투영된 지극히 현실적이고 속물적인 문제에 의해 결정되고 태어나고 있다. 이번 ‘용적률 게임’의 전시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매일 매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축가들의 작업과 과정들, 그 건물들이 파편적으로 펼쳐져 보여지는 도시의 모습을 통해 현재의 한국건축의 모습과 미래,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같이 이야기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